

한국출판, 우리知性的의 견인차

여석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벌써 30년쯤 전의 일이지만 세계문학전집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몇 군데 이름있는 출판사서 다투어 수십권씩 내는 바람에 줄속의 평을 받기는 했으나 아뭏든 세계문학의 정선된 고전들을 수많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끔 한 공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덕에 물론 이들 출판사가 짝짖한 수익을 올린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어느쪽이나 잘못된 일이 나무랄 점은 하나도 없다.

그런 무렵에 셰익스피어 전집이 한꺼번에 두 군데서 나온 일이 있었다. 이 작가의 탄생 4백주년 기념이라 해서 세계적으로 행사가 이뤄졌는데 우리 출판계도 말하자면 거기에 편승한 셈이었다. 그때도 번역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없지는 않았으나 결과는 아주 잘된 것이었다. 뒤에 가서 70년대초에 '세계셰익스피어회의'란 것이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 일행은 그 두가지의 한국어판 전집을 갖고 가 주최측에 기증한 일이 있었다.

그 결과는 약간 과장하자면 한국어란 나라와, 셰익스피어를 옮길 수 있는 한국어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존경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은 우리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셰익스피어가 번역될 수 있는 언어문화를 가졌고 그것도 전집까지 펴낼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해서 우리를 괘시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듯했다. 한국이 경제적 '기적'을 이뤘느니 어쩌니 하고 떠들기 훨씬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우리말에 대한 고마움과 세계의 고전을 끄덕없이(언제나 과열기미는 있었지만) 우리말로 옮겨서 펴내는, 그리고 손해는커녕 상당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출판계에 대한 문화적 긍지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여담이지만 지금까지는 아시아권에서 셰익스피어전집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우리 다음으로 중국뿐이다. 이 역시 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출판계의 내부사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아는 입장이 아니다. 학습참고서가 지나치게 시장을 식권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되고 도산에까지 이르는 경영상의 고통, 유통시장의 불균형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출판계가 매우 탐욕스럽게 그 지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출판저널」에 매호 소개되는 그토록 다양한 출판물의 리스트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장미의 이름」으로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추」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번역출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미국서도 열사람 중의 아홉쯤은 그냥 책장에 꽂아놓기 위해 산다는, 그래서 어쩌다 잘팔리는 책의 리스트에 끼이기도 한다는 이 책을 어쨌건 번역한 사람의 용기도 용기려니와 그 책을 읽으려고 하는 젊은이를 보고 나는 또한번 놀랐다(나도 영역본을 한권 갖고 있으나 펴볼 용기마저 없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물론 있지만).

요즘처럼 각종 정보문화의 홍수 속에서 아직도 활자문화가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 든든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 출판문화가 새해에도 왕성하고 탐욕스런 지적 욕구를 북돋아주는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권두논문 2 **한국출판의 새 환경과 새 조건**—이중환
1990년과 1991년의 사이에서

특집앙게이트 4 **"1991년에 나는 이런 책을 쓰겠다"**

한상진/이강숙/엄정식/고 은/박재년
김성동/권영필/김문환/박성래/윤후명
정진홍/이광주/신용하/목정배/최몽룡
정도상/이재선/김수행/현길언/최종고
조대현/김옥동/김태현/서연호/김경동
김정탁/이성천/김방한/이근후/김형국
김인회/이제하/이명현/권영민

서평 14 **황남일 「한국의 자원배분과 무역정책」**—이종운
쉴러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정진석

15 **이강숙 「한국음악학」**—이장직

블런트 「이탈리아르네상스미술론」—이은기

16 **김하기 「완전한 만남」**—한만수

유시춘 「우산 셋이 나란히」—김명인

17 **최창학 「벚개의 낙서를 통한 회상」**—이동하

정호승 「별들은 따뜻하다」—반경환

출판화제 18 **베스트셀러를 통해본 1990년의 출판**

20 **책으로 세우는 한 비평가의 동상**

창립 45주년 맞은 을유문화사

자료 21 **문화부 추천도서 선정목록**

신년에세이 22 **정갈해서 아름다운 앞날에의 바람**—최승범
다섯번째 맞는 양띠해의 첫아침에

화보 24 **기억과 상상의 연장으로서의 책**

책을 주제로 한 독일작가들의 미술전

해의화제 26 **美도서관에서 잘 없어지는 책들**

사람들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훑쳐가나

세계의 출판 28 **英美출판계가 거둔 1990년의 수확**—이봉호

「파이낸셜타임즈」 「비즈니스위크」 지 선정 '올해의 책'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사전**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구본창

謹賀新年

애독자와 편집서평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1년 새해
출판급고 임직원 일동

알림 연말연시 정례휴가에 따라 1990년 12월 20일자부터 1991년 1월 5일자(제75회)로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